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박물관 '문화길' 열린다

2012년까지 102억 투입 보행로 개설 시립미술관~문예회관 관람로도 정비

■중외공원 경관 보행로 설치 조감도



중외공원 경관 보행로 설치 조감도. 국립광주박물관, 인터랙티브미디어파크 예정지, 보행육교 설치, 비엔날레주차장, 보행육교 설치, 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비엔날레관

광주시 북구 중외문화예술벨트에 있는 광주 비엔날레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을 오가는 '문화길'이 개설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비엔날레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에 보행 육교(경관 코리더)가 개설됨에 따라 관람객들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편없이 걸어서 두 개 시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시립미술관~문화예술회관을 연결하는 동선도 크게 확충된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외문화예술벨트 네트워크 경관코리더 구축사업'을 102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시립민속박물관과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모여 있지만 중외공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로 동선이 단절돼 문화시설 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102억원(국비 51억, 시비51억)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2010년까지 국립광주박물관과 비엔날레전시관 사이에 보행 육교(경관코리더·600m)를 건설한다. 보행육교 개념으로 설치되는 경관 코리더는 시립민속박물관과 비엔날레 주차장, 전남도 교육청 앞 도로~광주박물관 주차장 사이 등 2곳에 설치된다. 또 시민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오는 2011~2012년에는 시립미술관~문화예술회관의 동선을 구축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지난 8월 사업 기본계획 및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 검토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1단계 사업비로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합쳐 모두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중외문화예술벨트 전체 시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가정, 활짝핀 웃음꽃. 지난 20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문화 체험의 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가족들이 '하늘 땅 풍물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과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명랑운동회와 세계 음식 맛보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송강 자료 등 담양 계당 보존 자료 4,176점 전남대 도서관서 위탁 관리

전남대 도서관이 송강(松江) 정철(鄭澈·1536~1593) 선생과 기암(崎菴) 정홍명(鄭弘溟·1582~1650) 선생 관련 고서, 고문서, 고서화 등 문화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자료 4천176점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전남대는 19일 "송강 정철 선생의 16대 후손이며 담양 소재 계당(溪堂) 당주(堂主)인 정구선씨가 계당에 400여년 동안 보관해 오던 자료 전부를 학교 도서관에 위탁키로 했다"며 "23일 오전 위탁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탁 자료에는 송강 정철을 이어 문장가로 명성을 날린 기암 정홍명, 소은(蕭隱) 정해하(鄭海河·1671~1754), 벽서(碧棲) 정운오(鄭雲五·1846~1920) 등이 주로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고서 406종

1천100여 책, 고문서 2천933건, 고서화 143점 등 많은 분량의 고문헌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고서는 강원도 관찰사 겸 수군절도사로 있던 송강 정철이 강원도내의 주와 힘을 받고 있는 수령들에게 정사의 근본이 풍화임을 밝히고 이에 힘을 줄 것을 권장하기 위해 1580년에 간인한 '유음재문'(諭邑宰文)을 비롯해, 1668년(현종 9년)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무신자(戊申字)로 찍은 '팔대가문초'(八代家文抄) 등 1500년대~1700대의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 등의 전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

조선대 기계설계공학 등 8개 전공 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 인증 받아

조선대는 21일 공과대학 8개 전공 프로그램이 한국공학교육 인증평가에서 '공학교육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전공은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금속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학, 광기술공학, 건축공학 등이다. 조선대는 2006년부터 공학 인증에 나섰으며 나머지 14개 전공도 조만간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활성화 시책 평가 북구청 1위 광산구 2위

광주시는 21일 "지역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북구청이 1위, 광산구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방 일자리 창출 등 부문 별 시책사업 추진을 상황 점검하기 위해 지난 8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 분야 등 모두 9개 분야, 22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름다운 개방 화장실 7곳

광주시 10개 분야 평가 선정



광주 시내 백화점과 대형 유통시설의 화장실 7곳이 '아름다운 개방 화장실'로 선정됐다. 광주시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곳은 홈플러스 계림점, 신세계 백화점, 롯데마트 상무점(사진),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동광주점, 차사랑 주유소, 롯데마트 첨단점 등 7곳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형건물과 마트, 주유소 등 17개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이용자 편의, 디자인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아름다운 화장실 7곳에 아름다운 화장실 표지판을 제공하고, 매월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청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청 개청후 최대 인사

동일 부서서 3년 이상 근무자 전보...전직원 절반 이상 자리 옮겨

광주교육청이 오는 1월 개청(198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조직활성화 등을 위해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순환전보' 등의 인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본청과 지역 교육청의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해 총원 1천600여명의 절반 가량이 800여명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특히 기능직은 7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직관리 인사기준에 따르면 일반직은 본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각 8년과 5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이 근무 기준 연한을 넘기면 지역 교육청이나 산하 기관, 일선 학교 등으로 순환 전보돼야 한다. 또 기능직도 본청에서는 8년, 지역 교육청과 직속 기관 등에서는 6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장기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데 따른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일선 교교의 정년 조정을 통해 내년초 기능직 요원을 13개 신설 학교에 전직 배치하고 이로 인해 비게 되는 자리는 일반직(9급)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로 기능직 대부분이 동일